



2011년 8월 1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무엇을 볼 것인가?
- 경제분석
저금리 유지의 방안이 부재했음을 보여준 FOMC
- 파생분석
8월 옵션만기: 시장은 불안하나 만기물량은 많지 않다
- 이머징마켓 동향
긴축완화 기대 등으로 중화권 증시 반등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4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패션 외 9종목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현대하이스코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03(수)	8/04(목)	8/05(금)	8/08(월)	8/09(화)	8/10(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6.26	2,018.47	1,943.75	1,869.45	1,801.35	1,806.24	
	등락폭	-55.01	-47.79	-74.72	-74.30	-68.10	4.89	
	등락종목	상승(상한)	145(9)	234(15)	66(5)	62(11)	97(5)	693(30)
		하락(하한)	719(2)	609(2)	810(11)	835(18)	790(20)	172(0)
	ADR	98.47	92.48	84.87	78.73	77.19	80.06	
	이격도	10 일	96.29	94.62	92.10	89.78	88.06	89.92
		20 일	96.31	94.44	91.45	88.56	85.96	86.86
	투자심리	40	40	3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424	348	476	565	677	481	
	거래대금 (십억 원)	7,953	7,536	10,291	10,682	13,336	11,076	
코스닥	코스닥지수	531.91	522.07	495.55	462.69	432.88	453.55	
	등락폭	-6.15	-9.84	-26.52	-32.86	-29.81	20.67	
	등락종목	상승(상한)	211(11)	259(15)	60(9)	76(8)	80(12)	899(71)
		하락(하한)	763(3)	708(4)	944(19)	931(78)	926(74)	102(4)
	ADR	99.20	94.82	86.99	79.63	76.85	82.40	
	이격도	10 일	99.45	97.65	93.32	88.25	84.21	89.71
		20 일	102.31	100.16	95.08	89.08	83.81	88.17
	투자심리	50	50	4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423	482	536	601	618	521	
	거래대금 (십억 원)	2,305	2,559	2,938	3,144	2,706	2,43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6,653.6	1,941.3	1,786.3	262.4	255.7	801.8	109.7	99.2	257.5	780.1
	매도	5,097.7	3,210.7	2,017.0	364.2	354.5	828.3	154.9	113.6	201.5	835.8
	순매수	1,555.9	-1,269.4	-230.8	-101.8	-98.8	-26.5	-45.2	-14.5	56.0	-55.7
	8 월 누계	1,722.8	-4,268.7	2,409.2	-56.8	74.8	664.3	160.0	-408.5	1,975.5	136.8
	11 년 누계	4,049.1	-5,086.1	2,926.8	2,292.0	-598.3	-4,121.0	1,603.4	-1,841.6	5,592.4	-1,889.8
코스닥	매수	2,239.4	108.5	90.0	8.0	14.4	42.6	10.5	3.4	11.2	25.1
	매도	2,209.7	109.3	115.3	6.1	14.2	67.1	6.3	3.8	17.8	28.8
	순매수	29.7	-0.7	-25.3	1.9	0.1	-24.6	4.3	-0.4	-6.6	-3.7
	8 월 누계	-73.7	-171.5	242.9	-21.7	78.4	85.1	30.3	-36.0	106.9	2.2
	11 년 누계	-10.2	15.4	286.1	65.9	181.3	-77.3	51.8	-93.3	157.8	-291.3

무엇을 볼 것인가?

8월 월간 밴드	2,050-2,250pt
2011 연간 밴드	1,880-2,400pt
12MF PER	8.7배
12MF PBR	1.11배
Yield Gap	8.1%P

- ▶ 주가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정책부재
- ▶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스권 장세 예상

■ 8월 코스피 밴드 하단인 2050에서 급락

우리는 8월초 미국이 부채협상을 통과한 이후 미국은 재정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고용과 소비가 재차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 불안이 결국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초의 우리 전략은 유효했으나 코스피 밴드 하단 2050 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그 이후부터 급락했다.

■ 주가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정책부재

주가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책부재의 문제다.

3년전 금융위기는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해서 파는 방식으로 주택 버블을 더욱 키웠다. 주택 버블은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반면 현재의 위기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정부가 점차 금융시장에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번 위기의 가장 큰 악재는 3년 전 위기 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앞으로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들의 두려움이다. 더 많은 돈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기업들은 돈이 많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이 스스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FOMC 발표는 기대에 못미치지만, 홀로서기에 대한 일시적인 공감대

이런 가운데 어제 FOMC가 있었다. 당초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부작용이 큰 3차 양적완화(QE3) 대신 지급준비율을 내리거나, 단기채를 파는 대신 장기국채를 사들여 재무부의 채권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기대했다. 지급준비율의 경우에도 연준이 준비금에 대한 금리(25bp)를 10bp로 낮추면 은행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 대출에 사용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만 초저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명시적인 기간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채권보유 규모와 보유기간을 늘릴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 성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초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힌 부분이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FOMC 당일 미국 주가는 올랐다. 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싹틀 수 있다는 대중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대중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시 주가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OMC 당일 미국 증시의 상승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세다.

■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 투자전략의 입장에서 향후에 체크해야할 부분은 기업의 투자가 될 수 있다. 올해 세계 경제 환경은 선진국이 부채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총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보면 하반기 매출은 정체될 수 있고, 비용은 증가하는 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즉,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장비, 토지, 건물 등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자생적인 회복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연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금리를 내리거나 국채를 사 주는 전략 보다는 지난 2년동안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경제주체인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비록 투자 증가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업입장에서도 투자를 통하여 수개월 돈을 벌지 못할수 있지만,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투자한다는 뉴스(즉, 설비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뉴스)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좋은 점수를 줄 것 같다. 따라서 향후 주가가 V턴 하기 위해서는(올해 안에 2,230을 넘기기 위해서는) 투자 뉴스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스권 장세 예상

수요일 장중저점 1,684를 적용하면 KOSPI는 단기간에 무려 21% 급락했다. 이러한 급락은 2008년 10월과 버금가는 수준이다. 주가의 패턴을 보면 과거 1937년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국면에서 조정 받은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그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새로운 수요창출로 미국 증시가 V턴을 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제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비록 하반기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가파르게 PER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생적인 성장동력확보와 이를 겨냥한 과감한 기업들의 투자가 전개되기전까지 적어도 3분기는 KOSPI가 상단과 하단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80선(PER 7.6배)을 저점으로 기술적반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2,000선을 고점으로 한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안에 KOSPI가 역사적 고점을 트라이하거나 넘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미국에서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의 투자->생산성 개선)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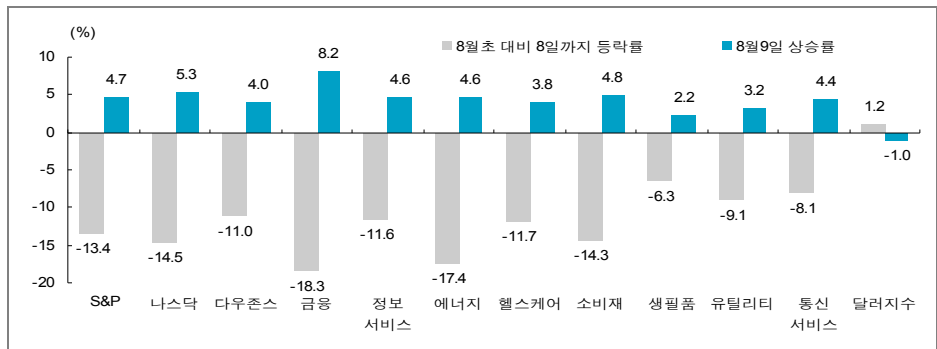
저금리 유지외 방안이 부재했음을 보여준 FOMC

- ▶ 초저금리 유지 외에 현재 택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음을 인정한 것
- ▶ 현재 경기 여건과 전망을 감안할 때 당장 QE3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초저금리 유지 외에 현재 택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음을 인정한 것

오늘 새벽 열린 FOMC는 결과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었다. 극도의 불안으로 치닫고 있던 시장 흐름을 진정시켰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FOMC는 최근 시장 급락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해 FRB로서 취할 수 있는 일이 달리 없음을 시인하는 일종의 자인서다. 겨우 제시한 처방이 2013년 중반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년 후의 통화 정책을 지금 미리 확정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2년간 금리 동결을 공언한 것은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3명의 위원이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림 1] 뉴욕증시의 최근 등락률 (8월초 대비 8일까지의 등락률과 전일 등락률 비교)



자료: Datastream

■ QE3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당장 시행 가능성 낮음

QE3의 가능성도 당장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째 이유로, QE3는 부작용이 워낙 커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QE2가 물가 상승을 유발해 전세계를 인플레이션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최근의 일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거대한 자금을 극단적으로 낮은 수익률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QE 정책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보면, 금융투자자들의 손실을 떠안는 셈이 된다. 둘째, 당사는 산업생산 등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일본 지진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8월 중순 이후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8월 4일자 'Economic Issue' 참고) 단기적인 지표 호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QE3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 불안이나 납세자들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이전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 등 QE3가 갖는 부작용을 능가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면 QE3 관련 대안이 빠른 시일 안에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QE3 가능성은 잔존하더라도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8월 옵션만기: 시장은 불안하나 만기물량은 많지 않다

- ▶ 선물시장으로 몰린 단기투자자 - 미결제 약정 급증
- ▶ 누구에게나 힘들었던 단기 급락장
- ▶ 8월 옵션 만기일 - 프로그램 매수 1,500억 원 예상

■ 선물시장으로 몰린 단기투자수요 - 미결제 약정 급증

7월 만기일 이후 고점을 향해 상승했던 KOSPI는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와 국가 신용등급 하향 이슈로 8월 1일 이후 16.9% 하락했다. 8월 9일 최저점 기준으로 22.5% 하락한 것으로 단기간 지수 하락폭으로 역대 최대이다. 지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현물과 선물시장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최고 두 배까지 증가했다. 특히 높아진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투자수요(speculator)가 선물시장으로 몰리면서 평소 9~10만 계약에서 유지되었던 미결제약정은 12만 계약을 넘어섰다[그림1]. 미결제약정이 감소하는 시점이 단기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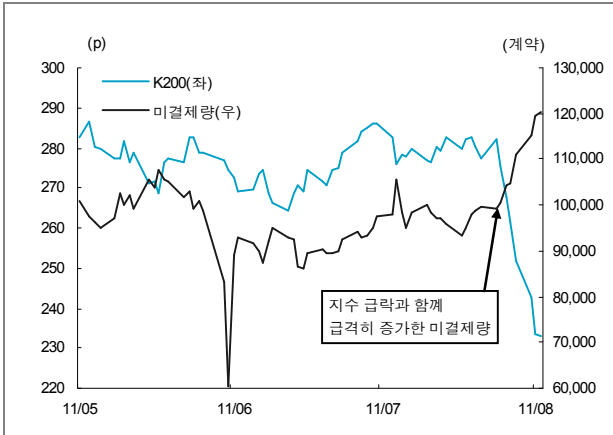
■ 누구에게나 힘들었던 단기 급락장

매수(long) 포지션일 수 밖에 없는 주식 보유자에게 지수 급락이 고통스러운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지만, 매도(short) 포지션이 가능한 선물/옵션 투자자에게는 지수 급락과 변동성 증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선물/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어떠한 투자주체도 이번 급락장을 이용해서 두드러진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한 것과 달리[그림2],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주체 별 매매 방향이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그림3]. 오히려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투자주체 별 매매 혼조 양상은 최근 급락장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웠는지를 반증하며, 단기적인 시장 예측 시 선물/옵션 시장의 움직임보다 현물 지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만기일 영향 미미할 듯 - 프로그램 매수 1,500억 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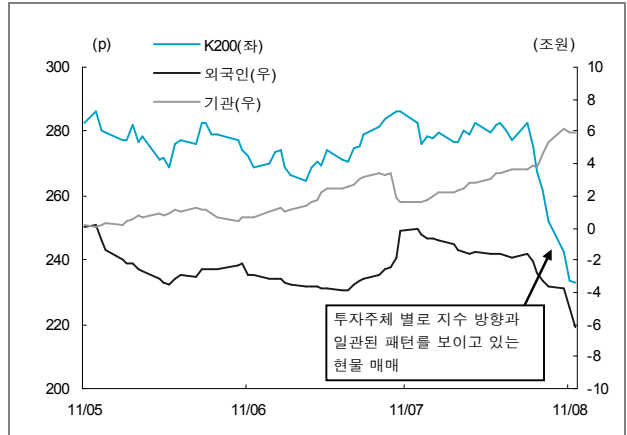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최근 지수 급락과 시장 변동성 증가와 관계 없이 이번 옵션 만기는 큰 충격 없이 지나갈 전망이다. 약 1,500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가 기대된다. 최근 급락장에서 지수와 합성선물 스프레드가 크게 움직이면서 차익거래 규모는 늘어났으나 장중에 진입과 청산이 반복되면서 실제 만기일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월 이후 시장 베이스 하락으로[그림4] 매수차익잔고는 약 4천억원, 매도차익잔고는 2.2조원 증가해 매도 여력보다는 매수 여력이 더 높은 편이다[그림5]. 단, 시장이 매우 불안한 만큼 만기일 장중의 베이스와 합성선물 스프레드의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그림6].

[그림 1] 지수선물 미결제약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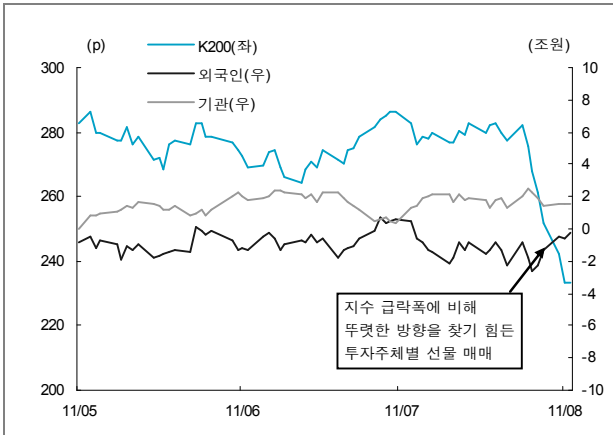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투자주체 별 현물시장 매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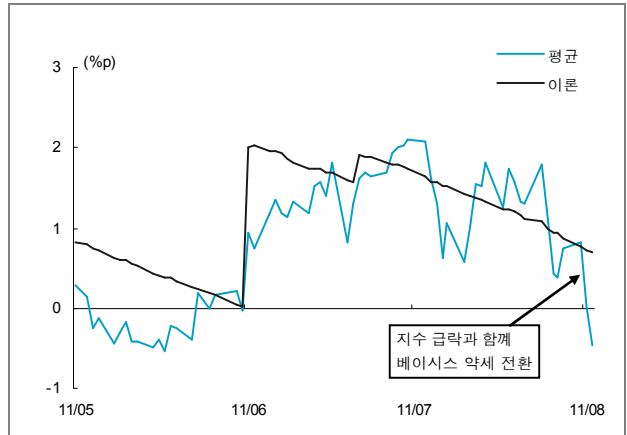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투자주체 별 선물시장 매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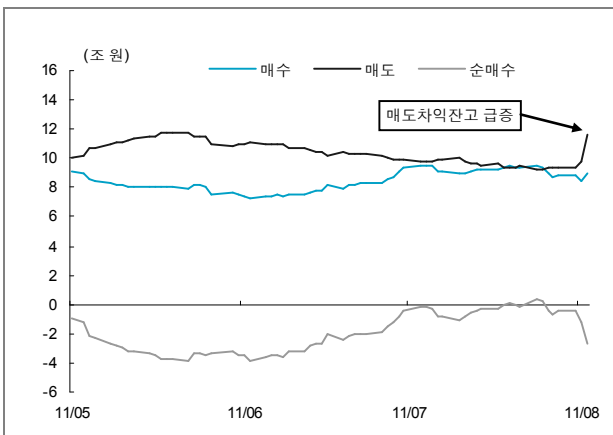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베이스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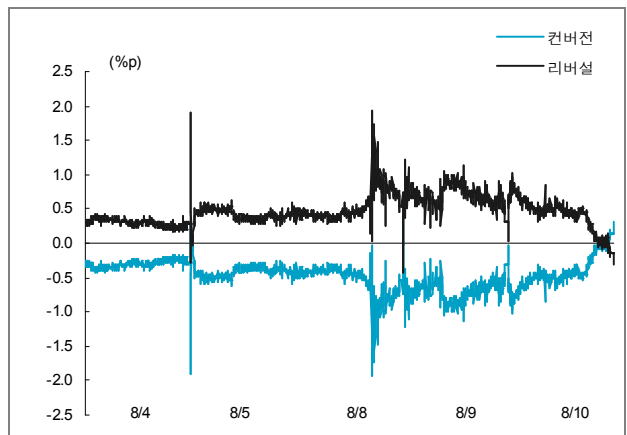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차익거래 잔고 추이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컨버전, 리버설 추이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긴축완화 기대 등으로 중화권 증시 반등

- ▶ 미국 FOMC 결과, 중국 정부의 금융 및 물가 안정조치, 추가긴축 종료 기대 등이 호재로 작용
- ▶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부동산 투자 규제지속 등으로 지수 반등 폭은 제한적
- ▶ 홍콩 증시는 장중 큰 폭으로 등락 후 6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

상해종합지수, 3일만에
0.9% 반등에 성공. 소비재,
농업, 전자재 등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0.9% 올랐다. 미국 FOMC 결과 및 다우지수 반등에 힘입어 1.4%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1.8%까지 올랐으나 결국에는 2,549p로 마감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수반등을 뒷받침했다. 국가발개위도 물가가 7월에 고점을 찍었을 것으로 전망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발표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켰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물가안정, 위안화 절상, 국제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인민은행이 올해 추가로 긴축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7월 무역수지도 예상을 상회해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부동산투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은감회(CBRC)가 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점 등이 지수 반등 폭을 제한했다. 철도운송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소비재, 농업, 전자재, 부동산, 비철금속, 석유 업종의 상승폭이 컸다. 한편 은행을 비롯한 금융, 철강, 헬스케어 등 업종의 상승폭은 1% 수준에 그쳤다.

■ 홍콩 시장

H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상승 폭은 1.9%에 그쳤다. 미국 FOMC의 저금리 유지 결정, 추가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큰 폭 반등해 출발했으나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장중 한때 13개월이래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중국의 긴축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호재였으나 세계경제 성장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되지 못했다. 비철금속, 자동차, 음식료, 건설, 석유, 은행 등 업종이 오름세로 마감한 반면 석탄, 전력, 제약 등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H지수 1.9% 상승, 세계 경
제둔화 우려는 여전. 비철금
속, 자동차, 음식료 등 강세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8/10(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549	0.9	-4.8	-5.6	-9.2
홍콩 H	10,580	1.5	-11.9	-14.5	-16.6
인도 SENSEX	17,082	1.3	-4.8	-6.1	-16.7
러시아 RTS	1,611	0.0	-15.3	-18.0	-9.0
브라질 보베스파	51,151	5.1	-10.7	-13.0	-26.2
베트남 VN	386	-0.4	-1.4	-4.9	-20.4
MSCI 이머징마켓	969	-2.2	-12.2	-14.9	-15.9

주: 10일 오후 6시 기준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현대하이스코(010520) ▶43,000원(+13.16%)	하반기 실적 호조 전망에 초강세 - 단가인상 효과 및 열연 투입가격 하락에 따른 물마진 확대로 하반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초강세 - 또한, 현대제철과 현대기아차간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150만톤 규모의 당진 제2 냉연공장의 가세로 견조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한세에스24홀딩스(016450) ▶5,390원(상한가) 한세실업(105630) ▶6,510원(+7.96%)	‘컬리수’ 인수 소식에 동반 급등세 - 한세실업이 의류유통기업으로서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컬리수(쥬드림스코)’ 지분 100% 를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동반 급등세 - ‘컬리수’는 2001년 런칭한 유아동복 의류브랜드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와 일반 대리점 및 해외에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산성피앤씨(016100) ▶1,240원(상한가)	화장품업체 흡수합병 결정에 따른 거래정지 후 재개 첫날 강세 - 사업다각화를 위해 계열사인 프로스테믹스와 리더스코스메틱의 흡수합병 결정에 따른 거래정지 후 재개 첫날 강세 - 이로써, 기존의 골판지·골판지 박스의 제조·판매 및 인쇄업 외에 바이오 사업, 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 등을 새로운 성장사업으로 확보
게임주	양호한 실적 발표 소식에 강세 - 최근 경기 방어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호한 실적 발표 소식까지 더해지며 강세 - 엠게임(058630), 게임빌(063080), 손오공(066910, 이상 상한가), 컴투스(078340, +14.49%), 네오위즈(042420, +13.85%), NHN(035420, +9.43%), 웹젠(069080, +8.51%) 등 강세
증권주	코스피가 반등하며 동반 강세 - 최근 급락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증권업증지수가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동반 강세 - SK증권(001510, +8.71%), KTB투자증권(030210, +8.24%), 한양증권(001750, +4.33%), 동양증권(003470, +3.87%), 유진투자증권(001200, +3.58%) 등 강세
금 관련주	금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에 강세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1,750달러에 다가서며 최고가 경신했다는 소식에 강세 - 씨앤케이인터(039530, +7.94%), 케이아이씨(007460, +6.68%), 고려아연(010130, +5.07%), 다스텍(043710, +4.30%) 애강리메텍(022220, +3.79%)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4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K텔레콤 (017670)	131,000 (-7.1)	141,000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 및 마케팅 비용 통제 등으로 양호한 실적 개선세 지속 - 플랫폼 사업 분사는 플랫폼 사업의 정부규제 회피 및 신규 수익모델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한 리스크는 주가에 일정부분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 및 배당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영이앤씨 (065570)	5,880 (-6.7)	6,300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0억원(+1% YoY), 49억원(-7% YoY)으로 예상. 영업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실적 - 하반기 영업환경 개선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 고마진 제품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26%대로 회복 예상 - 2011년 추정 EPS 기준 PER은 5배 수준으로 국내 독점적 시장 지위,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지속, 국내외 해상 규제강화로 인한 수혜 등을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
인터로조 (119610)	9,460 (+2.3)	9,250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매출액 59억원(YoY +21.4%, QoQ +9.5%), 영업이익 21억원(YoY +14.7%, QoQ +35.5%)으로 추정(영업이익률은 35%로 전분기대비 6%p 상승) - 기존 매출처인 유럽권역에서의 매출 호조와 더불어 중국 호리엔사 매출 9억원(추정) 발생으로 고객사 다변화 효과 기대 - 3분기 신제품 원데이씨클렌즈 출시 및 마케팅 강화로 현재 미미한 (2% 내외)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빅솔론 (093190)	4,320 (-0.2)	4,330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프린터 부문의 5가지 신제품 출시 및 신형시장 개척 등으로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 지속될 전망 - 무차입경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점(2010년 말 기준 20%)과 19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도 긍정적 - 2011년 추정 EPS 기준 PER은 4배 수준으로 양호한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
웅진생크빅 (095720)	17,500 (+3.2)	16,950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 사업 철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전집 사업 일회성 비용 소멸로 2분기부터 외형 회복 및 수익성 개선 예상 - 하반기 학습지, 영어학원 사업의 성장 및 신규 사업 효과로 실적 개선 모멘텀 부각될 전망 - 웅진패스원(지분율 62%) 상장 및 배당주 매력(배당수익률 6.4%)도 긍정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G패션 외 9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1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패션 (093050)	46,350 (+0.3)	46,200 (8/8)	1,312.7	157.3	125.1	4,279	10.8
			- 매장 확대 및 신규 브랜드 도입을 통한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 자체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에 주목할 필요				
한화 (000880)	40,550 (-2.4)	41,550 (8/8)	5,301.8	200.7	313.8	4,514	9.0
			- 핵심 자회사인 대한생명, 한화케미칼 등의 기업 가치 및 자체 영업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전망				
농심 (004370)	239,000 (-2.4)	245,000 (8/5)	2,008.4	116.6	137.0	23,686	10.1
			- 원가 부담은 상존하나 프리미엄 제품 출시 및 스낵 가격 인상 효과 등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KT&G (033780)	65,500 (-2.1)	66,900 (8/5)	3,662.3	1,193.6	938.0	7,415	8.8
			- 담배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신규 사업 가시화, 배당수익률 등이 부각되며 투자매력 상승할 전망				
현대중공업 (009540)	350,000 (-8.1)	381,000 (8/3)	25,117.9	3,047.9	3,229.5	52,693	6.6
			- 하반기 육상플랜트/해양플랜트부문의 수주 모멘텀 및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가치가 재부각될 전망				
현대모비스 (012330)	328,500 (-4.8)	345,000 (8/3)	15,420.4	2,110.8	2,891.0	29,691	11.1
			-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시장에서의 선전 및 동사의 해외 OE 매출 확대에 의해 견고한 수익은 지속될 전망				
대한항공 (003490)	64,200 (-6.3)	68,500 (7/28)	12,524.7	841.2	372.1	5,405	11.9
			- 하반기 여객 및 환승 수요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화물부문의 경쟁 우위와 운항 효율성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성 확보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41,000 (+0.9)	40,650 (7/12)	96.5	87.1	84.7	7,847	5.2
			- 자회사인 골드원코리아 가치 및 영원무역의 실적 호조,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송원산업 (004430)	16,050 (-5.0)	16,900 (6/21)	706.3	70.3	50.1	2,089	7.7
			- 페놀가격 하락효과(5월 고점대비 -25%), 한-EU FTA로 인한 관세(6%) 철폐효과, 제품가격 상승 추세 등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GKL (114090)	21,500 (+13.5)	18,950 (6/13)	559.0	133.4	69.7	1,127	19.1
			- 중국인 입장객 증가, 홀드를 안정화 및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한화, KT&G,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대한항공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현대, 기아 '저가매수' 기회로 보는 7가지 이유

■ '저가매수' 기회로 보는 7가지 이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과 함께 현대차(005380, TP 320,000원)와 기아차(000270, TP 105,000원)의 주가는 최근 급락했다. 이번 조정을 절호의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 7가지 때문이다.

1. 더 높아진 신흥시장 매출비중

현대와 기아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고성장을 구가해 미국과 유럽의 매출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현대의 미국과 EU시장 매출비중은 2007년 30.2%에서 2010년 24.9%로 하락했고, 기아는 동기간 무려 39.2%에서 28.8%까지 하락했다.

2. 'value car' 이미지 강화

현대와 기아는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기며 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value car' 이미지가 강화됐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유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사는 성능대비 매력적인 가격, 우수한 연비 등에 힘입어 세계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

3. 경쟁구도를 바꾼 디자인, 성능, 기능성

현대와 기아의 신차들은 디자인, 성능, 기능성, 연비 등 여러 방면에서 주요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양사 모두 J.D Power의 2011년 Automotive Performance, Execution and Layout(APEAL)에서 일본 Big 3를 넘어섰다. 현대는 2010년 760점에서 793점까지 상승하며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고 기아는 761점에서 777점으로 상승하며 일본 Big 3(Toyota 745 → 763, Honda 766 → 762, Nissan 763 → 762)대비 강세를 보였다.

4. 효율적 연비

현대와 기아는 40mpg 모델을 3개(Sonata hybrid, Avante MD, RB Accent)나 보유하고 있어 평균연비가 7월 36.3mpg, 7월까지 35.8mpg로 이미 미국정부의 2016년 기준치(35.5mpg = 15.1km/l)보다 높다. 기아차는 40mpg 모델로 6월에 K5 hybrid를 출시한 데 이어 9월에는 UB Rio를 출시할 예정이다.

5. 우호적인 환율

최근 1,050원을 하회했던 원/달러 환율은 9월 1,088원까지 상승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엔화가 달러대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원/엔 환율은 2010년 평균 13.2에서 최근 14로 상승했다. 이로써 한국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대비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판단이다.

6. 억눌린 미국수요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산업수요는 2008년 1,325만대, 2009년 1,043만대, 2010년 1,159만대로 1999-2007년 평균 1,681만대에서 급감했다. 이로써 억눌린 수요가 크기 때문에 산업수요가 다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연방정부에서 현재 0% 가까운 금리를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 동결시키기로 한 결정은 자동차 할부 금리를 낮춰 수요진작에 긍정적인 전망이다.

7. 역사적 valuation 하단에 근접

이번 조정으로 현대와 기아의 주가는 역사적 valuation 저점에 근접했다. 현대와 기아의 8월 9일 종가 194,000원과 69,000원 기준으로 양사 주가는 12개월 forward PER은 7.4배(12.3% EPS 성장률)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하이스코(010520)

매수(유지)
목표가: 48,500원(하향)
종가(8/9): 38,000원

어려울 때 더욱 든든한 captive market이 있다

■ What's new : 예상과 일치하는 2분기 실적

K-GAAP 기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7,718억원과 1,055억원을 기록했다. 우리 추정치가 매출액은 1조 7,880억원, 영업이익은 1,110억원이어서 예상과 일치하는 실적이다. 현대차/기아차 자동차용 강판 수요의 국내 공장은 69%, 해외 공장은 26%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분기의 국내 공장 73%, 해외 공장 27%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차의 자동차 생산량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은 6%로 1분기 5.3%보다 상승했다. 국제 열연 가격이 원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게 유지되어 수익성이 상승한 것이다.

■ Positives : 성장성이 다시 부각된다

오는 10월에 당진 공장의 #2 CGL(용융아연도금설비)이 완공된다. 이어서 2012년 1월에는 순천 공장의 #2 CGL이 완성될 예정이다. 당진 공장은 연산 25만톤, 순천 공장은 30만톤이 추가된다. 여기에 기존 라인도 설비 합리화로 생산 능력이 연산 15만톤 늘게 된다. 따라서 냉연 생산 능력이 연 380만톤에서 2012년에는 450만톤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설비로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며 현대차/기아차의 해외 공장에 주로 공급하게 된다. 이미 수요처를 확보한 생산 능력 확대여서 완공 이후 곧바로 출하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Negatives : 열연 가격 상승은 단기 부담

동사는 열연을 사서 냉연을 생산한다. 따라서 열연 가격은 낮고, 냉연 가격은 높을수록 좋다. 2011년에는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열연 가격이 약세를 보인 반면 냉연은 자동차 생산 호조로 강세를 나타냈다. 지금까지는 낮은 열연 가격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중국의 철강 산업이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열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으로 생산 능력이 증대되기 직전이어서 4분기 열연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 결론 : 목표주가 48,500원으로 12% 하향

12개월 목표주가를 55,000원에서 48,500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 4,031원에 목표 PER 12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목표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1) 열연 가격 상승을 감안해 2011년과 2012년 영업이익을 각각 6.6%와 6.8% 하향했고, 2) 목표 PER을 시장 하락을 반영해 14배에서 12배로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28%여서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2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88	1,772	-0.9	1,792	13.8	18.8	6,861	7,010
영업이익	111	106	-4.5	107	29.3	14.0	356	361
영업이익률(%)	6.2	6.0	-	6.0	NM	NM	5.2	5.1
세전이익	107	118	10.3	104	18.0	53.2	381	368
순이익	87	92	5.7	90	26.0	53.3	292	301

*상기 보고서는 2011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03(수)	8/04(목)	8/05(금)	8/08(월)	8/09(화)	8/10(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6.26	2,018.47	1,943.75	1,869.45	1,801.35	1,806.24	
	등락폭	-55.01	-47.79	-74.72	-74.30	-68.10	4.89	
	등락종목	상승(상한)	145(9)	234(15)	66(5)	62(11)	97(5)	693(30)
		하락(하한)	719(2)	609(2)	810(11)	835(18)	790(20)	172(0)
	ADR	98.47	92.48	84.87	78.73	77.19	80.06	
	이격도	10 일	96.29	94.62	92.10	89.78	88.06	89.92
		20 일	96.31	94.44	91.45	88.56	85.96	86.86
	투자심리	40	40	3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424	348	476	565	677	481	
	거래대금 (십억 원)	7,953	7,536	10,291	10,682	13,336	11,076	
코스닥	코스닥지수	531.91	522.07	495.55	462.69	432.88	453.55	
	등락폭	-6.15	-9.84	-26.52	-32.86	-29.81	20.67	
	등락종목	상승(상한)	211(11)	259(15)	60(9)	76(8)	80(12)	899(71)
		하락(하한)	763(3)	708(4)	944(19)	931(78)	926(74)	102(4)
	ADR	99.20	94.82	86.99	79.63	76.85	82.40	
	이격도	10 일	99.45	97.65	93.32	88.25	84.21	89.71
		20 일	102.31	100.16	95.08	89.08	83.81	88.17
	투자심리	50	50	40	40	30	30	
	거래량 (백만 주)	423	482	536	601	618	521	
	거래대금 (십억 원)	2,305	2,559	2,938	3,144	2,706	2,436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6,653.6	1,941.3	1,786.3	262.4	255.7	801.8	109.7	99.2	257.5	780.1
	매도	5,097.7	3,210.7	2,017.0	364.2	354.5	828.3	154.9	113.6	201.5	835.8
	순매수	1,555.9	-1,269.4	-230.8	-101.8	-98.8	-26.5	-45.2	-14.5	56.0	-55.7
	8 월 누계	1,722.8	-4,268.7	2,409.2	-56.8	74.8	664.3	160.0	-408.5	1,975.5	136.8
	11 년 누계	4,049.1	-5,086.1	2,926.8	2,292.0	-598.3	-4,121.0	1,603.4	-1,841.6	5,592.4	-1,889.8
코스닥	매수	2,239.4	108.5	90.0	8.0	14.4	42.6	10.5	3.4	11.2	25.1
	매도	2,209.7	109.3	115.3	6.1	14.2	67.1	6.3	3.8	17.8	28.8
	순매수	29.7	-0.7	-25.3	1.9	0.1	-24.6	4.3	-0.4	-6.6	-3.7
	8 월 누계	-73.7	-171.5	242.9	-21.7	78.4	85.1	30.3	-36.0	106.9	2.2
	11 년 누계	-10.2	15.4	286.1	65.9	181.3	-77.3	51.8	-93.3	157.8	-291.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2,271	서비스업	-97,311
철강및금속	25,966	운수장비	-16,880
건설업	16,082	금융업	-12,415
삼성전자	24,261	SK이노베이션	-70,334
삼성화재	13,023	SK	-25,997
호남석유	11,811	KB금융	-14,801
현대건설	11,639	GS	-14,783
대한항공	11,032	삼성중공업	-13,446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1,201	서비스업	-11,298
전기,전자	22,800	금융업	-5,942
건설업	6,577	화학	-2,949
현대중공업	27,839	SK이노베이션	-12,774
하이닉스	15,481	POSCO	-7,647
현대모비스	7,542	S-Oil	-5,675
NHN	7,088	KB금융	-4,449
GS건설	6,440	더존비즈온	-3,36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7,694	화학	-11,690
건설업	6,926	서비스업	-9,318
제조업	1,574	유통업	-2,615
POSCO	7,803	SK이노베이션	-6,964
SK C&C	4,657	S-Oil	-6,599
GS건설	3,372	호남석유	-4,284
기아차	3,320	SK	-3,241
현대건설	3,287	현대모비스	-2,94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4,914	금융업	-26,429
음식료품	3,942	전기,전자	-23,133
비금속광물	66	화학	-10,758
현대중공업	15,356	삼성전자	-30,651
LG	8,919	SK이노베이션	-18,906
LG디스플레이	8,491	POSCO	-11,497
삼성엔지니어링	7,575	KB금융	-9,676
엔씨소프트	5,924	S-Oil	-8,945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26,785	서비스업	-135,210
건설업	21,114	금융업	-46,368
음식료품	15,057	통신업	-28,678
현대중공업	36,995	SK이노베이션	-102,844
엔씨소프트	13,816	KB금융	-34,039
삼성화재	12,971	S-Oil	-33,643
현대건설	11,987	GS	-27,824
NHN	11,918	SK	-27,720
LG전자	11,431	KT	-26,916
고려아연	11,189	삼성전자	-20,545
CJ제일제당	10,823	현대모비스	-20,410
코오롱인더	9,719	현대차	-18,591
SK C&C	9,090	LG화학	-18,056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	(185)	화학	-253,767
종이,목재	(1,280)	전기,전자	-250,913
비금속광물	(2,046)	운수장비	-222,635
롯데쇼핑	7,238	삼성전자	-122,531
만도	6,483	POSCO	-95,789
삼성전자우	5,460	현대중공업	-77,444
GS	4,981	삼성물산	-61,992
동부화재	4,012	LG화학	-59,674
호텔신라	3,829	기아차	-45,528
한전KPS	3,531	LG전자	-39,903
우리금융	3,239	삼성중공업	-32,264
LG이노텍	3,209	현대차	-30,929
현대차우	2,899	LG디스플레이	-30,71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1,622	디지털컨텐츠	-7,571
출판,매체복제	1,069	반도체	-3,622
계약	1,066	소프트웨어	-3,341
CJ E&M	1,532	네오위즈게임즈	-6,523
에스엠	1,346	골프존	-3,841
덕산하이메탈	1,205	다음	-2,663
안철수연구소	1,156	유진테크	-1,604
CJ오쇼핑	948	SK브로드밴드	-1,021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314	반도체	-847
기계,장비	306	방송서비스	-316
사업지원	289	의료,정밀기기	-297
오성엘에스티	360	원익IPS	-741
CJ E&M	319	CJ오쇼핑	-310
하나투어	289	바텍	-297
안철수연구소	235	네오위즈게임즈	-237
후너스	216	이녹스	-223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3,341	디지털컨텐츠	-9,652
출판,매체복제	2,393	반도체	-5,668
사업지원	2,162	소프트웨어	-4,379
서울반도체	4,952	네오위즈게임즈	-8,177
CJ E&M	2,423	골프존	-4,983
에스엠	2,303	네패스	-4,672
차바이오앤	2,264	다음	-3,084
하나투어	2,056	실리콘웍스	-2,253
신택	1,804	인터플렉스	-2,102
안철수연구소	1,499	유진테크	-1,995
포스코캠텍	1,043	GS홈쇼핑	-1,382
덕산하이메탈	948	SBS콘텐츠허브	-1,308
메가스터디	841	유비벨룩스	-1,171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1,732	방송서비스	-1,799
비금속	1,671	반도체	-1,672
금속	1,294	IT부품	-942
서울반도체	1,880	네패스	-2,619
하나투어	1,729	GS홈쇼핑	-1,126
포스코캠텍	1,669	골프존	-963
CJ E&M	922	CJ오쇼핑	-820
와이지-원	708	파트론	-77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5,080	계약	-5,409
인터넷	4,700	전문기술	-4,316
IT부품	3,377	반도체	-3,829
다음	4,069	셀트리온	-7,590
네오위즈게임즈	3,623	CJ E&M	-4,625
메디포스트	1,960	서울반도체	-3,108
테크노세미켄	1,286	CJ오쇼핑	-2,901
원익IPS	1,166	파라다이스	-1,455
게임빌	1,165	포스코캠텍	-1,237
에스앤유	1,076	성우하이텍	-1,230
하나투어	1,048	엠텍비전	-983
보령메디앙스	1,039	이지바이오	-874
뷰웍스	933	유니슨	-793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3,341	디지털컨텐츠	-9,652
출판,매체복제	2,393	반도체	-5,668
사업지원	2,162	소프트웨어	-4,379
서울반도체	4,952	네오위즈게임즈	-8,177
CJ E&M	2,423	골프존	-4,983
에스엠	2,303	네패스	-4,672
차바이오앤	2,264	다음	-3,084
하나투어	2,056	실리콘웍스	-2,253
신택	1,804	인터플렉스	-2,102
안철수연구소	1,499	유진테크	-1,995
포스코캠텍	1,043	GS홈쇼핑	-1,382
덕산하이메탈	948	SBS콘텐츠허브	-1,308
메가스터디	841	유비벨룩스	-1,171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케이피케미칼	23 일	LG패션	5 일
롯데제과	19 일	LG	4 일
NHN	19 일	현대글로벌비스	4 일
아모레퍼시픽	18 일	SK C&C	3 일
POSCO	17 일	GS	2 일
대교	17 일	아모레G	1 일
퍼시스	14 일	알앤엘바이오	1 일
두산	13 일	현대하이스코	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모두투어	19 일	SBS콘텐츠허브	10 일
하나투어	16 일	유진기업	6 일
이트레이드증권	11 일	오성엘에스티	5 일
위메이드	9 일	동진세미켄	4 일
포스코켄텍	7 일	성광벤드	4 일
KCC건설	7 일	동양시멘트	4 일
CJ오쇼핑	7 일	KH바텍	4 일
한빛방송	7 일	네패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234,470	GS	21,882
POSCO	176,679	우리금융	18,924
현대중공업	170,260	LG	17,575
현대차	119,005	LG패션	15,705
LG화학	107,297	대우인터내셔널	12,745
금호석유	99,186	삼성전기	10,734
현대모비스	87,919	SK이노베이션	10,637
제일모직	79,934	LG이노텍	10,242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서울반도체	28,382	제이엔케이이터	4,993
CJ오쇼핑	20,559	메가스터디	3,144
하나투어	18,845	세운메디칼	2,879
다음	15,542	오성엘에스티	2,518
포스코켄텍	11,792	보령메디앙스	2,309
모두투어	9,219	SBS콘텐츠허브	1,771
에스엠	8,292	크루셜텍	1,648
파라다이스	8,192	오텍	1,47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섬유,의복	-2,852	-2,074	-4,926
은행	-3,216	-10,123	-13,339
의약품	-7,691	-7,444	-15,135
SK C&C	9,090	1,181	10,271
현대하이스코	7,497	197	7,695
만도	697	6,483	7,180
한진	1,680	371	2,052
현대상사	1,251	752	2,003
STX팬오션	468	766	1,234
다우기술	238	453	690
한미반도체	457	131	589
동원산업	477	8	485
유니온	243	84	326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사업지원	2,162	959	3,122
의료,정밀기기	9	1,192	1,201
정보기기	78	99	177
차바이오앤	2,264	882	3,146
하나투어	2,056	1,048	3,104
안철수연구소	1,499	203	1,702
원익IPS	404	1,166	1,570
멜파스	486	431	916
고영	62	692	754
셀트리온제약	227	235	462
동일금속	140	318	458
디오	417	38	456
우림기계	260	63	32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우조선해양	11 일	아모레퍼시픽	26 일
세종공업	8 일	대교	23 일
삼성정밀화학	5 일	한일시멘트	22 일
삼성중공업	5 일	롯데제과	22 일
동양기전	5 일	한국전력	16 일
한국금융지주	5 일	롯데칠성	15 일
경방	3 일	KCC	11 일
진로	3 일	남양유업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현진소재	8 일	태광	24 일
포스코 ICT	5 일	한국정밀기계	12 일
동국산업	4 일	동서	10 일
성광벤드	4 일	서울반도체	9 일
네패스	4 일	SK브로드밴드	7 일
심텍	4 일	CJ오쇼핑	7 일
오성엘에스티	4 일	AP시스템	7 일
메디포스트	4 일	주성엔지니어링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중공업	-113,127	삼성전자	-444,501
대우조선해양	-105,758	기아차	-275,590
SK이노베이션	-100,495	POSCO	-244,464
KB금융	-79,355	LG화학	-211,727
LG	-62,366	현대중공업	-178,392
GS	-51,094	현대차	-154,768
OCI	-42,066	현대모비스	-118,154
LG디스플레이	-38,978	삼성엔지니어링	-83,243

KOSDAQ			
기	관	외	국 인
골프존	-13,833	셀트리온	-21,317
네패스	-8,150	CJ오쇼핑	-19,367
오성엘에스티	-5,858	CJ E&M	-17,566
메디포스트	-5,116	서울반도체	-16,944
현진소재	-5,026	다음	-10,656
심텍	-4,418	네오위즈게임즈	-7,370
로엔	-3,627	AP시스템	-6,511
성광벤드	-3,595	모두투어	-6,42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화학	-16,148	-253,767	-269,915
전기,전자	-16,098	-250,913	-267,011
운수장비	-18,192	-222,635	-240,827
삼성전자	-20,545	-122,531	-143,075
SK이노베이션	-102,844	-12,512	-115,356
LG화학	-18,056	-59,674	-77,731
S-Oil	-33,643	-16,099	-49,742
현대차	-18,591	-30,929	-49,520
KB금융	-34,039	-12,778	-46,817
삼성중공업	-13,113	-32,264	-45,377
현대모비스	-20,410	-14,259	-34,669
SK	-27,720	-6,410	-34,130
호남석유	-6,189	-21,968	-28,156

KOSDAQ			
종	목	기	관
반도체	-5,668	-3,829	-9,497
계약	-29	-5,409	-5,438
방송서비스	-519	-2,595	-3,114
골프존	-4,983	-51	-5,034
실리콘웍스	-2,253	-647	-2,901
SK브로드밴드	-992	-125	-1,117
이지바이오	-209	-874	-1,083
STS반도체	-599	-425	-1,024
OCI머티리얼즈	-756	-183	-939
유니슨	-32	-793	-825
에코프로	-423	-328	-752
톱텍	-357	-364	-722
한국정밀기계	-554	-123	-67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현대제철	343	35,219
현대차	177	33,164
기아차	441	29,461
OCI	87	25,768
POSCO	53	21,429
금호석유	94	16,489
현대하이스코	321	12,077
LG화학	32	12,07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네오위즈게임즈	40	2,351
서울반도체	83	2,146
셀트리온	15	601
파라다이스	82	566
차바이오앤	49	522
넥스트칩	30	408
다음	3	403
서부T&D	16	288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9,797	3,997,360
삼성전자	2,583	1,870,452
OCI	4,924	1,511,585
현대차	4,649	901,927
현대중공업	2,096	716,708
하이닉스	34,604	698,991
LG전자	10,915	664,738
대우인터내셔널	14,724	530,04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873	354,925
서울반도체	7,292	185,958
메가스터디	250	36,030
OCI머티리얼즈	243	25,772
원익IPS	4,227	25,701
네오위즈게임즈	393	22,798
덕산하이메탈	870	22,185
테크노세미켐	521	21,118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종 목	금 액
전기,전자	8,389	종이,목재	-188
화학	8,386	의약품	-129
금융업	8,057	전기가스업	-53
현대상선	4,418	대한전선	-855
하이닉스	4,385	두산건설	-833
STX팬오션	3,381	한진해운	-676
우리금융	2,907	코오롱인더	-501
LG디스플레이	2,878	아시아나항공	-448
한화케미칼	2,769	대우건설	-343
하나금융지주	2,530	한진해운홀딩스	-225
KB금융	2,416	한라공조	-178
삼성중공업	1,542	LIG손해보험	-175
외환은행	1,348	한솔홈데코	-16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종 목	금 액
계약	499	통신서비스	-208
교육	346	금속	-135
반도체	240	화학	-126
서울반도체	439	SK브로드밴드	-208
셀트리온	336	주성엔지니어링	-146
에듀박스	266	현진소재	-123
안국약품	208	게임하이	-110
하림홀딩스	188	에코프로	-84
네오위즈게임즈	143	인스프리트	-63
멜파스	93	경남제약	-57
포스코 ICT	87	루멘스	-40
메가스터디	80	동국S&C	-39
디지털시스템	70	에스에프에이	-3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04(목)	8/05(금)	8/08(월)	8/09(화)	8/10(수)
외국인	-5,086.1	-4,268.7	-3,370.4	-438.6	-411.0	-84.4	-1,166.9	-1,269.4
기관계	2,926.8	2,409.2	2,103.8	-120.5	898.2	645.8	911.3	-230.8
(투신)	-4,121.0	664.3	824.3	50.2	398.3	143.8	258.7	-26.5
(연기금)	5,708.2	1,960.2	1,495.1	35.5	485.2	407.9	505.8	60.7
(은행)	-1,841.6	-408.5	-370.6	-76.5	-99.6	-144.4	-35.6	-14.5
(보험)	-598.3	74.8	156.3	49.9	78.1	52.5	74.5	-98.8
개인	4,049.1	1,722.8	842.9	472.5	-572.2	-733.3	119.9	1,555.9
기타	-1,889.8	136.8	423.6	86.6	85.0	172.0	135.7	-55.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8/03(수)	8/04(목)	8/05(금)	8/08(월)	8/09(화)
KOSPI	1,124.47	1,682.77	2,051.00	2,066.26	2,018.47	1,943.75	1,869.45	1,801.35
고객예탁금	9336.3	12072.0	14068.5	18476.5	18665.8	18798.1	19349.9	21275.1
(증감액)	-746.3	-714.3	-228.9	1286.2	189.3	132.3	551.8	1925.2
(회전율)	46.9	52.6	51.5	56.2	54.9	71.1	72.3	76.4
실질예탁금 증감	-624.7	-551.4	-655.2	764.8	746.9	744.9	1095.7	1595.6
신용잔고	1502.0	4359.5	5938.3	6331.7	6364.9	6392.8	6311.2	6010.6
미수금	145.1	240.2	192.3	186.5	283.4	349.0	358.8	339.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8/03(수)	8/04(목)	8/05(금)	8/08(월)	8/09(화)
전체 주식형	101,220	-3,673	789	179	167	252	168	-22
(ex. ETF)		-6,080	615	116	131	204	243	-44
국내 주식형	67,767	1,706	969	208	199	279	164	13
(ex. ETF)		-710	795	145	164	231	239	-10
해외 주식형	33,452	-5,378	-180	-30	-33	-26	4	-34
(ex. ETF)		-5,371	-180	-30	-33	-26	4	-34
주식 혼합형	12,488	471	103	15	21	80	-4	-20
채권 혼합형	19,336	-104	323	-44	105	229	-10	50
채권형	48,325	-4,634	-154	15	145	-9	-25	-103
MMF	52,697	-15,263	151	-485	1,740	-374	-92	7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04(목)	8/05(금)	8/08(월)	8/09(화)	8/10(수)
한 국	-681	-2,333	-3,114	-411	-387	-78	-1,070	-1,168
대 만	-1,187	-622	-4,105	-246	-539	-1,086	-1,138	-1,097
인 도	2,161	-1,156	-639	-33	-359	-247	-	-
인도네시아	2,719	-28	-407	-66	-144	-133	-111	-
태국	943	-551	-665	17	-204	-178	-300	-
남아공	49	-69	-413	-72	-169	-172	-	-
필리핀	682	68	-93	-6	-13	-38	-36	-12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0년	8/03(수)	8/04(목)	8/05(금)	8/08(월)	8/09(화)	8/10(수)
회사채 (AA-)	4.27	4.51	4.46	4.32	4.31	4.29	4.18
회사채 (BBB-)	10.26	10.50	10.45	10.31	10.30	10.28	10.15
국고채 (3년)	3.38	3.82	3.77	3.61	3.60	3.57	3.45
국고채 (5년)	4.08	3.94	3.90	3.77	3.81	3.81	3.65
국고채 (10년)	4.52	4.15	4.12	4.01	4.06	4.08	3.94
미 국채 (10년)	3.36	2.62	2.40	2.56	2.32	2.25	-
일 국채 (10년)	1.13	1.02	1.02	1.01	1.01	1.05	-
원/달러	1,134.80	1,060.40	1,061.70	1,067.40	1,082.50	1,088.10	1,080.00
원/엔	1,392.56	1,380.00	1,345.00	1,361.00	1,395.00	1,407.00	1,408.00
엔/달러	81.49	76.86	78.94	78.46	77.64	77.33	76.71
달러/유로	1.33	1.42	1.41	1.42	1.41	1.42	1.43
DDR3 1Gb (1333MHz)	1.09	0.79	0.78	0.77	0.74	0.74	-
NAND Flash 16Gb (MLC)	4.84	2.63	2.66	2.64	2.62	2.61	-
CRB 지수	327.11	337.32	327.97	326.80	317.74	316.12	-
LME 지수	4,164.25	4,170.5	4,093.5	3,945.6	3,816.0	3,815.9	-
BDI	1,773	1,260	1,268	1,268	1,264	1,257	-
유가 (WTI, 달러/배럴)	89.84	91.93	86.63	86.88	81.31	79.30	-
금 (달러/온스)	1,405.90	1,664.90	1,657.50	1,650.20	1650.20	1741.4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109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8월 4일	261.54	261.55	0.90	0.01	0.37	467,163	104,747	442
8월 5일	251.90	251.50	0.84	-0.40	0.74	530,575	111,165	6,418
8월 8일	242.45	241.75	0.74	-0.70	0.52	713,770	115,394	4,229
8월 9일	233.52	232.30	0.69	-1.22	0.03	730,189	119,546	4,152
8월 10일	233.23	231.50	0.69	-1.73	-0.47	548,573	120,463	917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8월 4일	2,573	-572	-1,645	-1,475	1,041	-595	-390	-83
8월 5일	7,541	-3,756	-3,046	-2,704	1,369	-1,168	-538	205
8월 8일	6,898	-941	-4,568	-1,880	-565	767	-3,115	-100
8월 9일	-1,673	733	1,159	703	1,629	179	-1,532	20
8월 10일	3,867	-5,433	733	-3,500	3,640	286	288	24
누적포지션	8,508	-4,135	-5,329	-5,828	7,257	-322	-6,543	-477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8월 4일	1,107	1,003	-104	627	706	78	480	297	-183	9,359	8,710
8월 5일	1,189	2,301	1,112	737	1,682	946	452	618	167	9,313	8,826
8월 8일	1,586	2,112	526	1,002	1,469	467	584	643	59	9,325	8,896
8월 9일	3,089	2,291	-798	1,660	1,687	28	1,429	604	-825	9,730	8,460
8월 10일	3,607	1,471	-2,136	1,676	1,002	-674	1,931	469	-1,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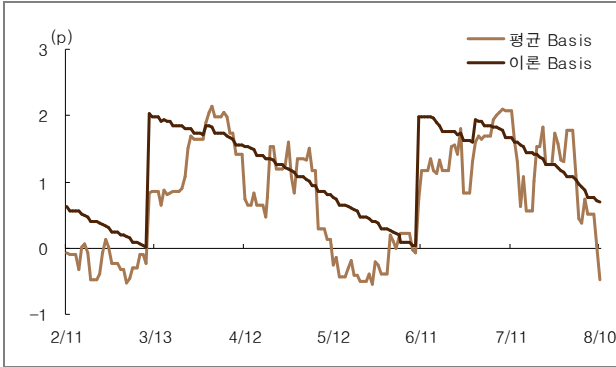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60.03	28,853	2,028,518	0.19	245.00	13.60	31,737	-1,770	119.79
	60.12	22,227	1,409,638	0.39	242.50	11.70	21,722	360	120.28
	58.60	39,309	1,283,920	0.69	240.00	9.55	103,131	4,302	112.05
	62.41	1,689	788,280	1.40	237.50	7.45	297,669	-6,469	102.66
	63.12	8,725	312,068	2.29	235.00	5.05	464,406	16,518	84.24
	60.85	3,796	119,873	3.35	232.50	4.05	805,724	10,410	90.83
	52.75	1,610	39,625	4.50	230.00	3.05	1,327,400	5,293	92.85
	26.75	326	14,312	5.80	227.50	2.12	1,982,722	-4,800	91.74
	0.01	161	381	8.10	225.00	1.52	1,209,848	23,337	93.88
	0.01	30	63	9.60	222.50	0.91	975,614	28,726	90.67
	113.32	13	37	14.40	220.00	0.63	730,811	34,598	9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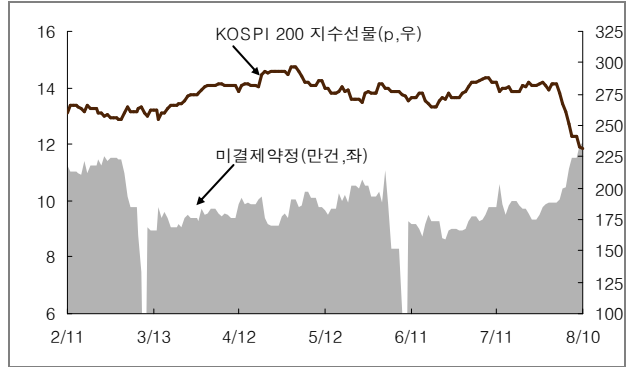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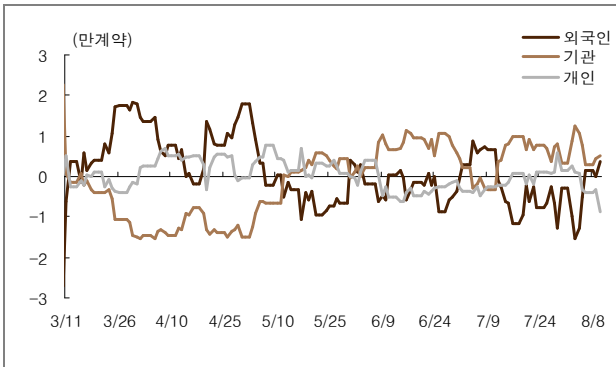
- 평균 Basis: -0.47 (전 거래일 대비 0.50 하락)
- 이론 Basis: 0.69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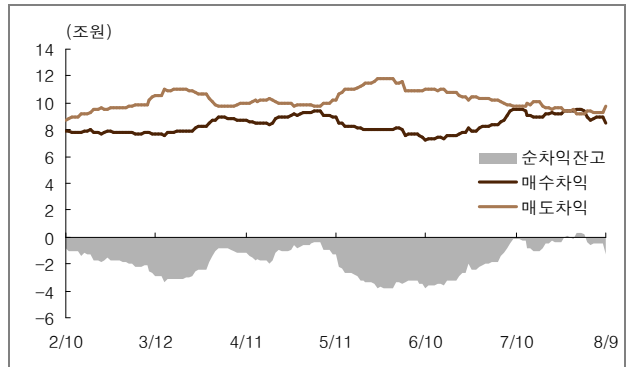
- 미결제 약정수량: 전 거래일 대비 917 계약 증가한 120,463 계약
- 선물가격(231.50): 전 거래일 대비 0.8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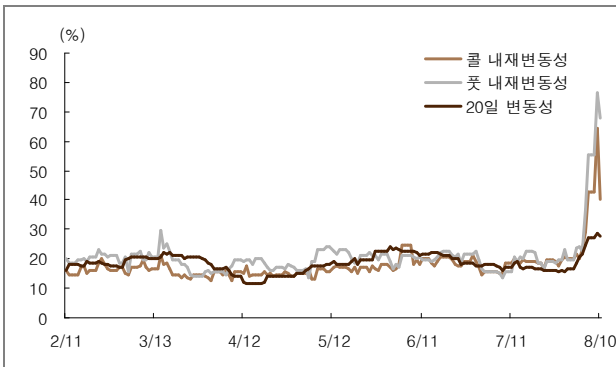
- 외국인: 3,867 계약 순매수
- 기관: 733 계약 순매수 / 개인: 5,433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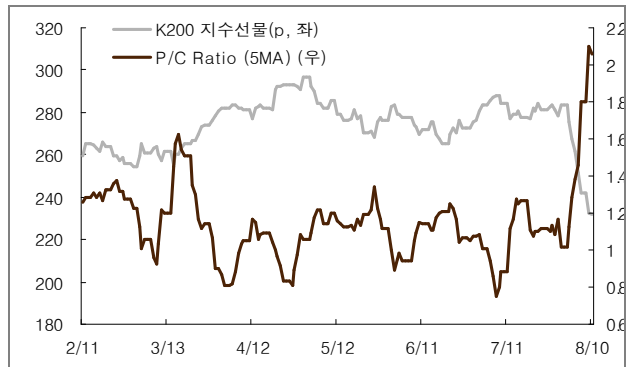
- 차익거래: 14,625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6,735 억원 순매도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40.0% / 풋 67.9%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7.90%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2.0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1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韓>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4.7%, 4.4%, 4.4%) 7월 대외무역-수출 YoY (27.3%, 17.1%, 13.6%) 7월 대외무역-수입 YoY (24.8%, 26.1%, 27.5%) 美> 7월 ISM 제조업지수 (50.9, 54.5, 55.3) 7월 ISM 구매물가지수 (59.0, 64.4, 68.0) 유럽> 7월 PMI-제조업 (50.4, 50.4, 50.4) 中> 7월 PMI-제조업 (50.7, 50.2, 50.9) 日> 7월 자동차 판매 YoY (-27.6%, n/a, -23.3%)	美> 6월 개인소득 MoM (0.1%, 0.2%, 0.2%) 日> 7월 본원통화 YoY (15.0%, n/a, 17.0%)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1%, n/a, -5.0%) 7월 ISM 비제조업지수 (52.7, 53.5, 53.3) 7월 ADP 취업자 변동 (11.4만, 10.0만, 14.5만) 유럽> 6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0.4%, -1.0%, -2.3%) 7월 PMI-서비스 (51.6, 51.4, 51.4) 中> 7월 PMI-비제조업 (59.6, n/a, 57.0)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0.4만, 40.5만, 40.1만) 유럽> ECB 금리공시 (1.50%, 1.50%, 1.50%) BOE 금리공시 (0.50%, 0.50%, 0.50%) 日> BOJ 금리결정 (0.10%, n/a, 0.10%)	美> 6월 소비자신용지수 (\$155.3억, \$50.0억, \$50.9억)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11.7만, 8.5만, 4.6만) 7월 실업률 (9.1%, 9.2%, 9.2%) 8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35.8, 42.0, 41.4)
8	9	10	11	12
유럽> 8월 섹터 투자자기대지수 (-13.5, 3.5, 5.3) 日> 6월 경상수지 YoY (-50.2%, -40.1%, -51.7%) 실적발표> 韓 한라건설, GKL, 아모레퍼시픽 LG패션, 삼천리	韓>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6.5%, n/a, 6.2%) 美> FOMC 금리결정 (0.25%, 0.25%, 0.25%) 7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89.9, 89.9, 90.8) 中>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7.5%, 7.5%, 7.1%)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6.5%, 6.4%, 6.4%) 7월 소매판매 YoY (16.8%, 17.7%, 17.7%) 日> 7월 통화공급 M2 YoY (2.9%, 2.9%, 2.9%) 7월 소비자자기대지수 (37.0, 37.0, 35.3) 실적발표> 韓 현대하이스코	韓> 6월 통화공급 M2 YoY (3.0%, n/a, 3.7%) 7월 실업률 SA (3.3%, 3.4%, 3.3%) 7월 은행가계대출 (445.5조, n/a, 443.2조)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7.1%) 中> 7월 대외무역-수출 YoY (20.4%, 17.0%, 17.9%) 7월 대외무역-수입 YoY (22.9%, 22.0%, 19.3%) 日> 7월 국내기업물가지수 MoM (0.2%, 0.0%, 0.1%) 실적발표> 韓 네오위즈게임즈 美 Cisco, 윌트디즈니	韓>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n/a, 3.25%, 3.25%)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40.5만, 40.0만) 6월 무역수지 (n/a, -\$480억, -\$502억) 中> 7월 실질 FDI YoY (미확정) (n/a, n/a, 2.8%) 7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n/a, 5500억, 6339억) 7월 통화공급 M2 YoY (미확정) (n/a, 15.8%, 15.9%) 日> 6월 기계수주 YoY (n/a, 11.2%, 10.5%) 실적발표> 韓 대한생명, NHN, CJ이앤엠, 아시아나항공, 한국가스공사 美 뉴스코프레이션	韓> 7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0.4%) 7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10.5%) 美> 7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5%, 0.1%) 日> 6월 산업생산 YoY (n/a, n/a, -1.6%) 실적발표> 韓 삼성생명, 다음, 엔씨소프트, 강원랜드, 현대글로벌비스 美 JC페니
15	16	17	18	19
美>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日> 도쿄백화점판매 YoY (미확정)	美> 7월 수입물가지수 YoY 7월 주택건설착공 MoM 7월 건축허가 MoM 7월 산업생산 MoM 유럽> 2Q 유로권 GDP SA YoY 실적발표> 韓 한국전력 美 월마트, 홈데포	韓> 7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7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유럽> 7월 유로권 CPI YoY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경기선행지수 MoM 8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8월 기존주택매매 MoM 日> 7월 대외무역-수출 YoY 7월 대외무역-수입 YoY	日> 6월 전체공업활동지수 MoM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